



“새 정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2007년 12월 19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 일꾼이 드디어 선출되었다. 국민들은 도덕성 의혹보다는 경제를 먼저 살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국민에게 정치이념이나 공약을 알리기보다는 인신공격 위주의 네거티브(Negative) 성향이 짙어 누가 어떤 사안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

엇인지조차 어필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더욱이, 농축산 분야 관련 공약의 경우 선거기간 내내 각 후보들의 농업관이 확실치 않은데다가 주요공약에서조차 타 분야에 떠밀린 형식상의 공약으로만 보여져, 한편으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농축산 부문이 주요공약에서 밀리게 되면 정책입안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라 자칫 산업자체가 등한시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마음 놓고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 축산업만 해도 유가와 곡물가의 동반상승으로 생산비가 급등하고, 물밀 듯 불어오는 시장개방의 압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비 이하로 출하·유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부적인 질병, 재해 등에 따른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농축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어느

대응하겠다 큰 소리치고는 곧 불가피한 개방이라며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문 발표로 무마하거나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축산업 분야를 지켜내겠다는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협상의 도구로 삼기도 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렇게 언행(言行)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당선된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의 슬로건과 같이 농정에 있어서도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서 대통령이

“2008년 새해는 색다르다. 쥐띠 해 발랄게 떠오른 새해는 여느 해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로서 선진국으로 정착하는 원년이다. 선진화 시대가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선 과거의 구태의연한 틀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신 패러다임과 새로운 각오로 뛰어아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우리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다. 대통령은 항상 국민속에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갈갈이 찢어진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결집된 에너지 없이는 선진화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가도 시장개방 물결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힘들다. 즉, 시장개방이 필수불가결하다면 몰려드는 외국의 농축산물과 대응해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축산업계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와 국내산 축산물 소비여건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축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우리 오리업과 같이 경쟁력 있는 축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로 하는 농정이 아닌 실천하는 농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말로 하는 농정에 지쳐 있었다. 지난 시절, 정부는 당선 공약으로 쌀 개방에 적극

돼주기를 바라며, 끝으로 새 정부에 기대하는 우리 축산인의 소망이 큰 만큼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